

# NEIGHBOR

International Art, Design and Style

네 이 버

SHISEIDO



ULTIMUNE



Because the beauty is already in you.

# NEWS



## 2015 여우락 페스티벌

6회째를 맞은 <여우락>이 재즈 아티스트 나윤선 예술감독과 새로운 시작을 연다. 예술가 간의 협업은 <여우락>의 전통이자 백미. 나윤선이 직접 무대에 오르는 디렉터스 스테이지, 핀란드 최고의 피아니스트 이로 란탈라, 천재 기타리스트 뉴엔 레 등 해외 뮤지션과 국내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믹스 매치 등 신작 무대 14개로 꾸며진다. 재즈, 월드 음악, 국악 등 국내외 뮤지션만 152명. 열광할 이유는 충분하다. **일시** 7월 1~26일 **장소** 국립극장 문의 02-2280-4114~6



## 어반자카파

끈끈하고 후끈한 여름. 선풍기 바람과 같은 감성 멜로디와 함께 휴식을 취할 것. 감성 음악의 대표 주자 어반자카파의 새 음반 <UZ>.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의 애뜻한 감정을 담아낸 타이틀곡 '둘 하나 둘', 원하는 일 앞에선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저질러도 좋다는 응원 메시지 담은 R&B 성향의 경쾌한 'Get' 등 맑은 바람 같은 그들의 목소리와 선율이 마음에 든다. 떠오르는 힙합 아이콘 빈지노가 피쳐링에 참여했다. **플릭서스 뮤직**



## 손님

류승룡, 이성민, 천우희. 주인공의 이름만 들어도 호기심이인다. 판타지 호러 영화 <손님>이다. 1950년대 어느 날, 떠돌이 약사 우룡(류승룡 분)과 영남 부자는 서울로 가던 길에 우연히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산골 마을에 들어선다. 마을의 유일한 골칫거리는 쥐 떼뿐이라는 평온한 마을. 정작 그럴까? 이 묘한 마을에, 제 발로 들어온 손님에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일까. **개봉** 7월 9일



## 우먼 인 골드

경매가 1500억원. 전 세계적인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명작 '아멜레 블로흐-바우어의 초상'을 되찾기 위한 8년간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에 의해 국가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의 추억이 담긴 그림을 되찾고자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 실존 인물인 '말리아 알트만'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헬렌 미렌과 라이언 레이놀스가 함께한다. **개봉** 7월



## 가브리엘 쿠리

멕시코 출신의 현대미술가 가브리엘 쿠리의 국내 첫 개인전. 그의 조각과 설치의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의 중간 지점에 자리한다. 그는 강철과 돌 같은 전통적 재료 외에도 지폐, 종이컵 등 소비자라면 누구나 아는 친숙한 소재를 사용한다. 이번 전시에서도 그는 서울에 머무는 동안 수집한 오브제를 등장시켰다. 이 소재는 동시대 소비문화와 세계화에 던지는 그만의 예리한 언어다. **일시** 7월 5일까지 **장소** 국제갤러리 문의 02-735-8449



## The Liminal Space

캐롤 앤 맥고윈, 데이비드 오케인, 에이먼 오케인. 이들의 공통점은 아일랜드 출신의 전도유망한 젊은 작가들이란 것. 페인터 3인으로 구성된 전시 <The Liminal Space>가 열린다. 폐기된 물탱크를 형이상학적 경험의 축소판으로 재구성한 데이비드, 내부와 외부, 자연과 인공,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사이의 개연적 공간을 다룬 에이먼까지. 그들은 시간, 공간, 존재 사이의 모호함을 화폭에 담았고, 등장인물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일시** 7월 2일~8월 1일 **장소** 갤러리바톤 문의 02-597-5701



## 아라리오 상하이 개관전

아라리오 갤러리가 상하이에 문을 열었다. 첫 개관전은 베이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리후이 작가. 그는 LED 조명, 메탈 같은 산업 재료로 시간과 공간 사이의 '순간적 광기'를 포착한다. 전시장에는 컨테이너 안에서 터질 듯 감혀 있는 거대 코볼소가 탈출하는 순간을 극적으로 표현한 'Trust of Uncertainty' 등 대형 설치 작품이 들어섰다. 이를 통해 그는 중국 사회의 발전과 그 이면의 상실을 꼬집는다. **일시** 8월 16일까지 **장소** 아라리오 갤러리 상하이 문의 (21) 5424 9220



## 정창섭 개인전

다양한 매체와 화려한 색채가 범람하는 요즘. 한국 현대미술 1세대 작가 정창섭의 단색화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자연의 소박함과 은은한 멋이 담긴 닥종이. 한지의 원료인 '닥'이 지닌 고유의 생명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한 정창섭.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전시는 그의 시대별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로, 총 30점이 전시된다. **일시** 7월 10일~8월 30일 **장소** 조현화랑 부산 문의 051-747-8853